

# “희망사가 덕분에 큰 꿈이 생겼어요” LH 경남본부, 전국 최초 ‘희망사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훈택)는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희망사를 공급했다.

희망사란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단지 내 상가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청년·경력단절 여성·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를 말한다.

###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 'LH 희망사가'

희망사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사회적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Ⅱ형)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Ⅲ형)으로 구분된다.

공공지원형 Ⅰ형은 감정평가 금액의 50%, Ⅱ형은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창업 아이템과 사업실행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입점자를 선정한다.

일반형은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자를 입점자로 선정한다.

그 낙찰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공임대사가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최장 10년간 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공공지원형 입점자는 최장 6년을 보장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조정 시 추가로 4년간 계약할 수 있다.

### '전국 1호점' 하동읍 희망사가

올해 9월 개소한 경남 하동군 하동읍내 희망사는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젠트리피케이션(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LH 공공임대상가의 첫 출발이기 때문이다.

LH는 하동읍 소재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총 5개 호 중에서 3개 호를 일반형, 2개 호를 공공지원형 Ⅰ형으로 공급했다. 공공지원형 Ⅰ형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540만원, 월 임대료 23만원이다.

희망사가 주위에는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해 상가로서의 입지조건이 매우 양호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2.5대 1)을 기록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통해 40대 경력단절 여성의 미니 갤러리와 20대 중반 청년의 로컬푸드 카페가 최종 선정됐다.

미니 갤러리 '두연'을 운영하게 된 박금연 씨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핸드메이드 공예품, 그림 및 음료 등을 판매한다.

상가에 들어서면 예스럽지 않은 공예품과 그림이 눈에 띈다.

입점자는 하동에서 오랫동안 클레이아트, 섬유 채색, 다육아트 및 패션 페인팅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박 씨는 "LH 희망사를 통해 미래의 큰 꿈을 꾸고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게 됐고, 시작점에선 지금 상당히 가슴이 떨린다"며 "꼭 성공해서 사회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로컬푸드 카페를 운영하는 김다은 씨는 '하동카페'라는 상호로 커피, 스무디 및 차 등을 판매한다.

메뉴는 여느 커피숍과 다를 바 없지만, 하동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로 음료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황천면에서 재배한 블루베리와 바나나, 옥종면 목장의 요구르트, 금남면에서 생산한 달걀 등 지역의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김 씨는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자랑하지만 알릴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20대 처지에서 무작정 로컬푸드 카페를 열기 부담스러웠으나 LH가 좋은 계기를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경훈 LH 주거복지본부장은 "LH는 창업 취약 계층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창업 공간을 제공해 입점자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희망사가 192호를 공급하는 LH는 앞으로도 공공임대단지를 대상으로 희망사가 입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



## 당신보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족의 꿈과 희망을 사랑으로 지키고 키워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생활 속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